

## 로타리클럽의 재정투명화의 필요성과 방안



글. 5지역 대표, 한성로타리클럽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재정투명화, 왜 필요한가?

2011년에 발생한 한국로타리장학재단의 35억여원 공금횡령사건으로 우리 한국로타리안들은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 또한 몇 년전 지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총재 이·취임행사를 연기하고 행사장소를 바꾸어서 겨우 치른 적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클럽별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클럽회원들 간의 믿음이 깨지고 갈등이 심화되어 존폐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물론 비단 우리 로타리클럽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들도 각종 재정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구성원들이 하나 둘씩 그 단체를 떠나고 만다. 우리 로타리도 이런 일로 많은 로타리안들이 떠났고, 후유증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다. 지구 총재와 클럽회장이 매년 내세우는 최대의 목표가 “회원증강”과 “PHF 등 봉사성금의 확대”이지만 성과를 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투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정의 투명성 요구는 지구와 클럽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로타리(RI) 본부에서도 회원 상호간의 신뢰성을 높여 회원증강과 기부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한 로타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목소리인 것이다.

### 재정투명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로타리의 기초단위이며 뿌리인 클럽의 재정 투명화 방안에 한정하여 간단히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클럽의 정관과 세부규정에 재정투명화를 위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생클럽은 물론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클럽들도 회장이나 재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며, 매년 로타리 회기가 끝나면 재무관련 인수인계가 신규 임원의 사적인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로타리클럽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어 법인명의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서 회장 등 임원 몇 사람이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도덕군자가 아닌 이상 비리를 저지르기 쉽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클럽 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정관과 재정에 관한 규칙 등을 모든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에서 제정한 후에 클럽 단체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시해야 한다. 각 클럽은 법률적으로 법인에 준하는 단체(법률용어로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름)이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클럽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마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클럽정관, 회장(대표자) 선출 총회 회의록, 클럽도장, 사무실주소를 증명하는 임대계약서(많은 클럽이 사무실이 없이 사무장이나 임원이 채택근무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구사무실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등을 지참하고 클럽 대표자가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클럽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거래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을 클럽명의로 개설하고 모든 거래를 하면 된다. 모든 재산의 취득·변경·상실을 클럽명의로 하게 된다. 심지어 부동산 취득도 클럽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둘째,** 재정 투명화를 위한 회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회원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회비와 각종 성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드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라인을 구축(예를 들면 사무장-재무-회장 등)하고 금전출납부와 영수증은 회원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비치해 놓는다. 회비 등은 가급적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은행이클럽명의로 발급해 준 카드를 사용한다. 또한 가능하면 매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하여 주보나 메일·카톡 등으로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감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회기 말 총회에서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 클럽들은 정관에 명시된 회계감사, 사업감사 등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심지어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사인을 한다. 수입지출 결산서도 회계일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감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불편하고 어렵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투명한 재정 운영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클럽들이 문제가 되면 부정과 부패 의혹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클럽 회원들이 내는 회비나 성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면 클럽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서 회원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발적인 회원증강과 각종 성금이 증가할 것으로 믿는다. 재정투명화의 실천으로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이 잘 이루어져서 로타리안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건강한 로타리클럽으로 거듭나야 발전이 있다. 송고한 로타리 강령과 네가지 표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명실공히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 즐겁고 행복한 보금자리 공동체가 되길 기원한다. ☺